

챔스필드 '핫코너' 3루를 주목하라



KIA 최원준

'3년차' KIA 최원준·롯데 신인 한동희 특급 대결



주말 챔피언스필드 3루에 눈길이 쏠린다. 대전 원정을 다녀온 KIA 타이거즈가 롯데 자이언츠와 안방에서 주말 3연전을 치른다. 주중 분위기가 엇갈린 두 팀의 대결이다.

KIA는 4연승 분위기를 잊지 못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냈고, 2승 11패의 부진에 빠져있던 롯데는 첫 연승을 이루는 등 반등의 시간을 맞았다. 주중 다른 표정을 지었던 두 팀이 주말 챔피언스필드에서 만난다.

3루가 말 그대로 '핫코너'가 될 전망이다. 특급 신인들의 등장으로 들쭉날쭉하고 있는 2018시즌, 롯데 3루에는 한동희가 있다. 최근 페이스가 주춤하기는 하지만 한동희는 고졸 루키 답지 않은 파워로 입단 전부터 눈길을 끌었던 인물이다. 수비는 아직 서툴지만 선배들을 감탄하게 하는 좋은 타격으로 1군 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가고 있다.

한동희는 계속된 연패로 시름에 빠져있던 롯데팬들을 웃게 한 희망이기도 하다.

그는 최근 발표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예비 엔트리에 동기 kt 위즈 강백호(외야수), 삼성 라이온즈 양창섭(투수)과 함께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올 시즌 '대형 신인'들의 활약에 진땀을 흘렸던 KIA 입장에서 한동희는 또 다른 경계 대상이기도 하다.

KIA는 2018시즌 개막전에서 kt 강백호에 '개막 1호 홈런 역대 최연소 기록'을 내어주었다. 기록의 희생양은 '20승 투수' 헛터였다.

그리고 프로 데뷔전에 나선 삼성의 남다른 신인 양창섭에게는 '역대 최연소 선발승' 기록란에 이름을 남겨줬다. 삼성 새 외국인 선수 에델만이 나섰던 전날 경

기에서 17점을 뽑아냈던 타선이 이날 양창섭에 완벽하게 봉쇄되면서 KIA는 0-6 영봉패를 당했다.

또 다른 신인왕 후보 한동희가 '신인 등용문'이 된 챔피언스필드에서 첫 경기를 치르게 된 만큼 그 결과에도 눈길이 쏠린다.

KIA 3루에도 시선이 간다. 이범호의 부상으로 무주공산이 된 3루에는 최원준이 있다.

최원준은 특급 고졸 야수 계보를 잇는 3년 차 선수다. 고교 무대를 평정했던 타격 실력과 파워 여기에 빠른 발이라는 강점도 가지고 있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재활을 하던 시기를 제외하고 내내 1군 무대를 지킨 그는 끝내기 만루포 등 인상적인 활약을 하면서 팀 우승에 힘을 보탤었다. 지난 시즌 활약을 바탕으로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시리즈(APBC) 대표로 선발되어 국제무대에서 뛰기도 했다.

그리고 올 시즌에는 11일 현재 25타수 9안타(1홈런)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많은 시간을 3루에서 보낸 그는 1루수, 유격수, 우익수로 나가 전천후 활약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 예비 엔트리 발표날 한동희와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에도 KIA 야수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최원준의 이름이 예비 엔트리에 빠지면서, 최원준은 남은 기간 다른 팀 유망주들과 선의의 경쟁을 할 기묘조차 얻지 못했다.

통산 성적 또는 올 시즌 성적, 부상, 1군 경기 출전 여부 등 선발 기준이 모호한 데다 무려 109명이나 되는 대규모 엔트리가기 때문에 최원준의 탈락에 대한 뒷맛이 개운치 않다.

희비가 엇갈린 양 팀의 미래가 첫 만남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궁금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롯데 한동희

내일 '타이거즈 러브투게더' 데이

KIA 타이거즈가 14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타이거즈 러브투게더' 데이를 실시한다.

'타이거즈 러브투게더'는 국내 최초 모기업-프로구단 연계 방식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경기 기록에 따라 KIA 선수와 구단 임직원, 기자차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기부금을 매일 적립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KIA와 기자자동차는 14일 2018시즌 제1회 타이거즈 러브투게더 데이를 열고, 지난해 '타이거즈 러브투게더'를 통해 적립한 기금(5억3000만원) 중 일부인 7500만원을 광주YMCA 청소년 야구단에 지원한다.

KIA와 기자차는 취약계층 야구 유망주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지난 2015년 기아-YMCA 청소년 야구단을 창단해 체계적인 훈련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경기 시구는 광주YMCA청소년야구단 김상민 군이 하고, 시타는 러브투게더 우수 참여 직원인 류재남 기자(광주공장 시설관리팀)가 맡는다.

또 KIA 선수단은 특별 제작한 '러브투게더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출전한다. 경기에 앞서 꿈나무 선수들에게 사인 배트를 전달하고 기념촬영도 한다.

KIA는 향후 러브투게더 지원을 받는 야구동아리와 야구 꿈나무들을 초청해 기부금 전달식을 갖는 등 '타이거즈 러브투게더 데이'를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인비 공동 5위

롯데 챔피언십 1라운드

'골프 여제' 박인비가 시즌 첫 메이저 대회 '1박 2일' 연장전 패배의 아쉬움을 딛고 시즌 2승에 다시 도전한다.

박인비는 12일 미국 하와이주 카폴레이의 코올리나 골프클럽(파72·6397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 1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버디 1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 순위는 이날 단독 선두에 오른 세계랭킹 1위 평산산(중국·5언더파 67타)에게 두 타 뒤진 공동 5위다.

시즌 첫 번째 메이저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페르닐라 린드베리(스웨덴)와 이틀에 걸친 8차 연장 끝에 분패해 준우승한 뒤 이 대회에 출격한 박인비는 첫날 선전으로 기대감을 높였다.

1번 홀에서 출발해 전반 버디와 보기 1개를 맞바꾼 박인비는 13번 홀(파5)에서 세 번째 샷을 홀 1m가량에 떨어뜨려 버디를 낚은 것을 시작으로 3개 홀 연속 버디 행진을 펼쳤다.

강해지는 4언더파 68타를 기록해 평산산에 한 타 차 공동 2위로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2009년부터 LPGA 투어에서 뒀던 박인비는 우승 경력도 없고 2014년 10월 레인우드 클래식 등 세 차례 공동 3위에 오른 것이 가장 좋은 성적이다.

지난달 KIA 클래식에서 LPGA 투어 통산 4번째 우승을 수확한 지은희는 버디 4개를 잡아내고 보기는 1개로 막아 박인비 등과 공동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두산 양의지 벌금 300만원

KBO, 봉사활동 80시간도



KBO가 두산 베이스 포수 양의지(두산 베이스)에게 벌금 300만원과 청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처벌을 부과했다.

출장 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KBO는 1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양의지의 징계를 확정했다.

양의지는 지난 10일 방문 경기, 7회 말 바뀐 투수 광빈의 연습투구 때 공을 잡지 않고 살짝 피한 탓에 공이 주심을 향해 날아갔다. 정중수 주심이 황급히 피해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 앞서 양의지는 7회초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를 두고 "양의지가 불만을 표하고자 공을 일부러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의지는 "순간 공이 보이지 않아 놓쳤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오승환 2경기 연속 무실점

오승환(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실점 위기를 극복하며 2경기 연속 무실점 투구를 이어갔다.

오승환은 12일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방문경기에서 3-5로 끌려가던 7회말 팀의 4번째 투수로 등판했다.

오승환은 첫 타자 애덤 존스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았다. 그러나 페드로 알바레스에게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 크리스 데이비스에게 좌익수 앞 안타를 맞아 1사 1·3루 실점 위기에 몰렸다.

아직 '돌직구'를 회복하지 못한 오승환은 다양한 변화구로 위기 탈출에 성공했다.

팀 베컴은 슬라이더로 타격 타이밍을 빼앗아 내야 뜬공으로 처리했고, 크레 젤트리로부터는 헛스윙 삼진을 유도했다.

이닝 2회말 2타삼진 무실점을 기록한 오승환은 평균자책점을 3.60에서 3.00까지 낮췄다.

/연합뉴스

'양속' 양키스-보스턴 한 경기 2번 벤치클리어링



타자 오타니 팀 승리 전인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사진)가 타자로 팀 승리에 힘을 보탤다.

오타니는 12일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와 방문경기에서 8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3타수 1안타 1타점 1볼넷을 기록했다. 타율은 0.364(22타수 8안타)로 올랐다. 타점은 8점이다.

오타니는 2회초 2사 1·2루에서 텍사스 선발 좌완 맷 무어의 2구째 속구를 밀어쳐 좌전 안타로 출루했다. 그 사이 2루 주자가 홈을 밟아 에인절스는 1-0으로 앞서갔고, 이 점수는 그대로 결승점이 됐다. 4회초 삼진 아웃, 6회초 투수 직선타로 몰려난 오타니는 8회초 선두타자로 등장에 볼넷을 골라냈다.

오타니와 처음으로 '지명타자 맞대결'을 펼친 추신수도 1안타 1볼넷으로 맞섰다.

텍사스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한 추신수는 4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해 시즌 타율은 0.264(53타수 14안타)가 됐다.

1회말 첫 타석에서 내야 땅볼로 아웃된 추신수는 3회말 무사에 주자 없는 상황에서 볼넷을 골라냈다. 5회말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된 추신수는 7회말에는 루킹 삼진으로 물러났다.

9회말 2사 1루에서 마지막 타석에 들어간 추신수는 키넌 미들턴을 상대로 좌전 안타를 때렸고, 프로파르의 안타가 이어져 텍사스는 1점을 만회하고 2-7로 경기를 마쳤다.

/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보스턴 레드삭스와 경기에서, 뉴욕 양키스의 타일러 오스틴(가운데)이 상대팀 투수 조 켈리(오른쪽)에게 돌진하는 것을 보스턴 포수 게리 산체스(왼쪽)가 막고 있다. 3회 초 오스틴의 거친 2루 슬라이딩으로 한 차례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한 데 이어, 7회 초 켈리가 고의성 질은 투구(시속 157km)로 오스틴의 등을 맞추자 두 번째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했다. 양키스는 난투 끝에 보스턴에 10-7로 승리했다.연합뉴스